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5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돈 관리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44번 ‘성모의 성월’ 1,2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 주님, 온갖 두려움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소서.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9장 12절에서-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 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렸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탈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에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렸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렸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렸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이는 열 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에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타인과 비교하느라 불행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때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는지요? 신앙인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고 늘 하느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하느님의 능력에 신뢰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종의 변명 속에는 두려움이 강조됩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관계를 얼어붙게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두려움이 개입되면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성인처럼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을 받고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가 두려움만으로 주님 앞에 나선다면 믿음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미나는 돈입니다. 주인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주셨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셈입니다. 기쁘게 살고, 남을 돕고 평화를 나누며, 행복과 사랑을 심으라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이 미나였던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한 종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 미나를 수건에 싸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멈추게 합니다. 나도 두려움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지 못하면 기쁨의 신앙은 멀어집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찌 기쁨의 신앙을 전할 수 있겠는지요?

(신은근 바오로 신부)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6번 ‘사랑하올 어머니’ 1,2절을 부릅니다.



궁금했어요

미사 중에 성체조각을 떼어 성혈에 넣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사제는 축성된 빵에서 한 조각을 떼어 성작 안에 넣으면서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사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일치가 이루어짐과 성체와 성혈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때문에 사제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결합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그분의 몸과 피의 일치를 뜻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희생 제사”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서로 떨어진 지역 교회들의 일치를 표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각각 따로 축성하는 이유는 육과 영이 갈라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섞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의 몸과 피가 일치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된 성체성혈처럼 신앙인들을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불멸의 양식이 공급되어 같은 주님의 피와 살을 모신 한 형제의 삶으로 일치되기를 기원하는 동작입니다. 벅찬 감동의 순간이지요. 그리고 성체가 성혈과 섞인 이후에 교우들에게 성체를 모시게 함으로써 성혈을 모시지 않더라도 양형영성체를 한 것과 동일한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함안성당 3구역1반 -

강 신 근 야고보 (함안성당 3구역장)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갈라 5,9)

함안 본당은 1900년 마산 완월본당 말산공소로 시작하여 1932년 함안본당으로 승격되어 올해 본당설립 8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창녕, 의령, 칠원, 대산본당을 분리시켜 저희 본당이 마산3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안 본당은 가야읍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위에 세워졌는데 당시 빨간 지붕의 서양식 고딕 건물이 처음 세워져 신자들은 물론 이 지역민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97년 다시 새 성전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최태준(필립보)신부님과 심재완(스테파노)사목회장을 중심으로 500여 명의 신자가 본당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연령층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 40명, 중고등부학생이 35



명, 대학생들 중심으로 청년회원들이 20명이나 되니 촌 본당치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신학생이 5명이나 되니 교구 내 어느 본당과 비교해도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한 마디로 탄탄한 본당이라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본당의 신심단체도 레지오 단체를 빼고도 60년대 결성된 성모회를 비롯하여 30여개의 크고 작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역시 소공동체 모임이 본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저희 본당 소공동체는 4구역 1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3구역 1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구역1반은 37세대로서 전출입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3구역장은 전임 사목회장이 맡고 있고, 반장은 현 사목회장 부인인 조영희(유릿다)자매가 3년째 맡아오고 있습니다. 반모임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시간인데 반모임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반장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반원들을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12~13세대는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어 참석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단체가 그러하듯 반모임도 누군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희 3구역 1반도 유릿다 반장님의 열성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희 반의 자랑은 대부분의 반모임에는 남자가 없는데 비해 저희 3구역 1반에는 전. 현 본당 ME대표부부가 있는 반이라 부부들 참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모임 참석 때는 부부세대는 단독입장 불가라서 팔짱을 끼고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반모임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겠지요. 세례식이나 견진, 전입세대, 쉬는 교우, 병자방문, 수험생이 있는 가정, 수술을 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기면 하나같이 관심을 가지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이 되면 반원들은 일찌감치 나와 어깨띠를 하고 성당 마당에서 줄을 서서 본당 식구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며 손 흔들며 주면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고령화와 신자증가율 감소, 또 냉담자 증가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있지요.

3구역 1반은 무엇보다 반원들이 서로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냉담자를 줄이고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데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함안성당 3구역1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